

고문헌을 제재(題材)로 한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

김묘정 · 정기호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Trends of Scenery Research with a Old Literature Subject Matter

Kim, Myo-Jung · Jung, Ki-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on the traditional scenery architecture based on the old literature for the last 10 years and to suggest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the traditional scenery through utilization of the old literature. For the tendency analysis of the research on the traditional scenery, I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earch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between 2002 and 2012, and reviewed the utilization of the old literature about research on the traditional scenery.

The number of the research papers through the old literature was two or three a year by 2009, but has increased to more than eight from 2010. The utilization tendency of the old literature was mostly to use the Korean translations or to use a collection of an individual's works after partially translating. As some of the researches were carried out only through translations even when they used the original, historical evidence on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was insufficient.

I can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the traditional scenery by the results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present both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and to specify the source of translation, for the efficient understanding and verification of the original. Professional transl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scenery also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records of the current state.

For the analysis of the old literature, as th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scenery both through poetry and records facilitates assumption of the location of landscape by the abundant data, it seems to be necessary to approach research, using poetry and prose complementarily, after preparing foundation of research based on the records.

Key Words : Grope for Direction, Historical Evidence, Poetry Documents, Recording Document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고문헌을 제재로 한 전통경관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고문헌자료 활용에 있어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전통조경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조사·분석하여 전통경관연구의 고문헌자료 활용을 고찰하였다.

고문헌을 통한 연구논문의 수량은 2009년까지 한해에 2~3편 정도인 것이 2010년부터 8편 이상으로 많아졌다. 고문헌 자료의 활용경향은 국역본을 사용하거나 개인문집의 일부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문사용에 있어서도 간혹 번역문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원문번역에 대한 고증부분이 미진한 점도 나타났다.

결과에 의해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원문의 효율적인 이해나 검증을 위해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제시하고, 번역의 출처도 명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을 기록한 기문인 경우에는 조경 및 경관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번역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Mjo-J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South Korea. Phone : +82-31-290-7843 E-mail : ejmmq2@empal.com

고문헌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시문과 기문 등을 병행한 전통경관 분석은 풍부한 자료로 인해 경관의 위치 및 장소 추정이 용이하므로, 기문 등을 근거로 연구의 기초를 잡은 후, 보완적으로 시문을 활용하는 등의 연구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고증, 기문, 방항모색, 시문

I. 서론

최근 들어 일반문인의 개인문집을 대상으로 한 전통경관연구의 폭이 확대되면서, 주로 국역으로 번역된 저명인의 문집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등 기존의 전통경관 연구방법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일반 문인들에 의해 집필된 개인문집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으며, 전통경관연구에 있어 문집에 포함된 기문(記文)이나 시문(詩文) 및 잡저(雜著) 등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역으로 번역된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며, 일부 전통경관연구에서 개인문집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고문헌을 제재로 다루어진 전통경관 및 전통정원(이하 전통경관)에 관련된 연구는 47편이었다. 그 중 31편이 개인문집을 제재로 연구되었고, 그 외는 군지, 읍지, 승람, 고지도 등을 제재로 연구된 것이었다.

주요 연구대상은 팔경(八景)이나 구곡(九曲)을 주제로 하거나, 건축물 또는 별서·별업을 주제로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내용은 입지와 공간구성·조명방법·변천과정·경관해석·경관요소·경관분석·고증연구 등으로 나타난다.

전통경관에 관한 연구들은 고문헌을 제재로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고문헌 속에 포함된 기문이나 시문 등의 제재 활용과 번역문 및 원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이해와 검증에 따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전통경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0년대 즉, 최근 10년 동안(2002-2012)의 고문헌 연구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경관관련 연구경향 분석을 살펴보면, 김용기(1991)는 1960년 이후 한국조경학회지에 게재된 조경사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정원유형(공간구성, 경관해석, 역사경관보존 및 정비, 사상적 배경, 구성요소 등)의 세부내용을 분류하였고, 김용기와 정기호(2000)는 1982에서 1999년까지 전통조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경향을 분석하고 전통조경의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고, 정성태와 정기호(2000)는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국내 관련학회를 대상으로 풍수에 대한 연구 비중과 전개 상황을 검토하였다. 신상삼(2003)

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조경학회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조경사분야의 점유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역별로 조사하여 연도별 추이 및 성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최근 10년 혹은 30년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경향을 추이한 논문들로 범위 내에서 학회지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추이하거나, '풍수' 논문의 사례같이 관련 여러 학회지에서 국한된 주제를 가지고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경향을 분석한 연구처럼 한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통경관연구에 있어 주된 제재로 사용되는 고문헌의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경향분석이나 추이에서 벗어나 주제를 한정하여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한 것으로 이런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고문헌을 제재로 한 전통경관관련연구가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대상과 주제의 경향을 조사하고, 고문헌 자료의 번역 및 분석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개념 정립

본 연구의 범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전통조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649편중에서 영문학회지 등을 제외한 연구논문 487편중에서 고문헌 자료를 제재로 활용하여 전통경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논문 47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전통조경학회는 1982년을 시작으로 논문들이 게재되었지만 고문헌을 제재로 전통경관을 연구한 논문은 80년대에 3편(민경현, 1982; 정동오, 1983; 이석래, 1986), 90년대 2편(백지성, 1994; 나미영 등, 1998), 2000년에 1편(남승희, 2000) 등으로 미비한 편이며, 그 외 연구는 주로 고증을 위한 소재로 사용되거나 혹은 여러 지역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등 전적으로 고문헌 중심의 전통경관연구로 보기에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매년 2~3편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었던 2012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연구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연구에 제시된 저명도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저명도는 ‘저명’과 ‘비저명’으로 구분하였는데, ‘저명’은 “널리 잘 알려진 대상으로서 대부분 문집과 같은 관련 문헌들이 번역되었거나 다양한 연구를 거쳐 이미 탄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기반을 갖춘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비저명’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관련문헌의 번역이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저명도의 객관적인 분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조경 관련 유사학술지에서 2번 이상 연구제재 및 소재 또는 주제로 등장한 연구를 기준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저명’과 ‘비저명’을 구분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경관연구의 대상과 주제에 대한 경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고문헌자료의 활용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문헌자료의 번역관계 및 분석 자료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2002년 ~2012년) 전통조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고문헌을 제재로 전통경관을 연구한 논문 47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연구대상지와 대상의 유형 및 주제 내용을 구분하여 편수를 조사하였고, 세부적으로 고문헌자료의 활용경향파악을 위해 번역관계에서 번역문과 원문제시 및 번역출처 등을 조사하고, 분석 자료와의 관계에서는 기문이나 시문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Ⅲ.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

1. 전통경관연구의 대상과 주제 경향

1) 전통경관연구의 연구 대상

최근 10년간 한국전통조경학회지에 발표된 고문서를 통한 전통경관 연구는 47편의 논문이 있었다. 논문수량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해에 2~3편정도 연구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8편, 15편, 7편 등으로 2009년 이전보다는 수량이 증가되는 추세였다(표 1 참조).

연구대상을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곡마을·면양정·서석지원·하회16경·청평사·남간정사·석파정·석천동·무흘구곡·연주정·독락당·운선도 고산별서·낙덕정·수선

루 등이며, 2010년에는 통도팔경·도화동원림·청평사·별서명승(학천정 외 2곳)·광한루원·수우재·퇴식재·피향정·경천대 등, 2011년에는 여주팔경·비해당·청풍계·구곡원림(갈은구곡)·농연서당·금시당·청심루·광제정·창덕궁 후원·퇴수정·유회당·임대정·용호정원·소쇄원 원림 등, 2012년에는 하거원·취석정·반변천·모현정·일지암 다정·농산별업·돈암서원 등이 있었다.

연구대상의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널리 잘 알려진 대상으로서 관련 문헌들의 번역 및 다양한 연구 등이 있는 “저명”한 것과 그 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저명”한 것이다(표 2 참조). 객관적인 분류를 위해 전통조경 관련 유사 학술지에서 2번 이상 연구제재 및 소재 또는 주제로 등장한 연구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¹⁾

표 1. 최근 10년간의 전통경관연구 대상

연도	편수	연구 대상(지)
2002	2	①매곡마을(김두규외2), ②면양정(문영숙외1)
2003	2	①서석지원(김동훈외2), ②풍암정(이원호외3)
2004	1	①하회16경(유한영외2)
2005	3	①청평사1(윤영활외2), ②청평사2(윤영활외2) ③남간정사(홍형순)
2006	2	①청평사(윤영활), ②석파정(이원호외2)
2007	1	①석천동(김수진외2)
2008	2	①무흘구곡(김수진외2), ②배산 연주정(노재현외2)
2009	4	①독락당 일대(강승영외1), ②고산별서(유가현외1), ③낙덕정(노재현외2), ④진안 수선루(신상섭외2)
2010	8	①통도팔경(노재현), ②도화동 원림(김홍곤외1), 청평사(김용현외1), ③별서명승(이재근), ④광한루원(심우경외2), ⑤수우재(김정식외3), ⑥퇴식재(신상섭외1), ⑦피향정(이현우), ⑧경천대(이유진외2)
2011	15	①여주팔경(노재현), ②비해당(신상섭외1), ③청풍계(이진향외1), ④구곡원림(노재현외2), ⑤농연서당(김묘정외1), ⑥금시당(엄태건외4), ⑦청심루(노재현외1), ⑧광제정(노재현외4) ⑨창덕궁 후원(송윤희외1), ⑩퇴수정(이현우외3), ⑪유회당(신상섭외2), ⑫임대정(노재현외3), ⑬용호정원(이현우), ⑭소쇄원(소현수), ⑮광한루 편역시(안득수)
2012	7	①하거원(신상섭외2), ②취석정(노재현외2), ③반변천(김정문외1), ④모현정과 수포대(노재현외2) ⑤일지암 다정(노재현), ⑥농산별업(서동일외1), ⑦돈암서원(노재현외3)

표 2. 전통조경 관련 유사 학술지에 연구제재로 활용된 횟수

구분	저명(2번 이상 연구)		비저명(1번 이하 연구)
	4번 이상	2~3번	
연구 대상	청평사 선원, 청평사 원림, 임거십오영, 고산별서, 광한루원 비해당, 창덕궁 후원, 유회당, 소쇄원 원림	면양정, 서석지원, 하회 16경, 남간정사, 석천동, 피향정, 경천대, 여주팔경, 구곡원림(갈은구곡), 금시당, 청심루와 연주팔경, 광한루 편역시, 하거원 원림	매곡마을, 풍암정, 석파정, 연주정, 무흘구곡, 낙덕정, 수선루, 통도팔경, 도화동 원림, 별서명승(학천정외), 수우재, 퇴식재 원유, 청풍계, 용연서당, 광제정, 퇴수정, 임대정, 취석정, 반변천, 모현정과 수포대, 일지암 다정, 농산별업, 돈암서원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로 다양한 연구를 거친 기초연구가 잘 갖추어진 저명장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논문 17편 가운데 10편(면양정·서석지원·하회16경·청평사 선원·남간정사·석천동·독락당·윤선도 고산별서 등)이 저명한 것이며, 7편이 비저명한 대상에 해당되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잘 알려진 저명한 장소와 거의 잘 알려지지 않는 비저명한 장소가 병행되어 진행되었는데, 2010년에는 8편 가운데 3편(광한루원·피향정·경천대 등)이 저명한 장소이며, 5편이 비저명한 장소에 해당되었다. 2011년에는 15편 가운데 5편(여주팔경·비해당·창덕궁 후원·소쇄원·광한루 등)이 저명한 장소에 해당되며, 10편이 비저명한 장소에 해당되어 비저명한 장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비저명한 장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7편 가운데 6편이 비저명한 장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즉 저명대상지인 경우에는 시문집이나 국역본 자료들이 많아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대상을 연구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고, 비저명장소나 개인문집을 발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번역본의 고증이나 검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 전통경관연구의 대상 유형

논문에서 주제로 사용되었던 대상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경이나 곡을 주제로 한 것과 정(亭)·루(樓)·재(齋)·당(堂) 등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것, 별서(別墅) 및 원림 등을 주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 곡을 주제로 한 것은 9편,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것은 12편, 별서나 원림 등을 주제로 한 것은 약 24편 정도로 조사되어, 단독 대상보다는 대상물과 주변경관을 포함한 별서나 원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다(표 3 참조).

경이나 곡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9년 이전까지는 하회16경·무흘구곡·임거오십영 등 잘 알려진 장소를 주제로 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통도팔경·농연서당십경·금시당12경·반변천 십이승경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소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사내용도 2010년까지는 조영 의미와 상징성·이상향·경관해석 등에 관한 것이었고, 2011년부터는 경관구조분석이나 장소확인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경우에는 2009년부터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조사내용도 장소성·정체성·원형경관 탐색 등 좀 더 세부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별서 및 원림 연구에서도 2009년 이전까지는 잘 알려진 장소, 2010년 이후부터는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연구내용들도 다른 대상 유형에 비해 경관의 전반적인부분을 범위로 하여, 상징적 의미·공간구성·사상·의미경관론적 해석·경관인식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표 3. 전통경관연구의 대상 유형

구분	편수	대상지
경(景)이나 곡(曲)을 주제로 한 것	9	하회16경(2004), 연주정12경(2008), 무흘구곡(2008), 임거오십영(2009), 통도팔경(2010), 농연서당십경(2011), 금시당12경(2011), 여주팔경(2011), 반변천십이승경(2012)
정·루·재·당 등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것	12	면양정(2002), 풍암정(2003), 남간정사(2005), 석파정(2006), 수선루(2009), 낙덕정(2009), 수우재(2010), 피향정(2010), 퇴식재(2010), 광제정(2011), 모현정(2011), 돈암서원(2012)
별서(別墅), 원림 등을 주제로 한 것	24	서석지원(2003), 청평사 선원1(2005), 청평사 선원2(2005), 청평사 원림(2006), 석천동(2007), 고산별서(2009), 독락당 원림(2009), 별서명승(2010), 도화동 원림(2010), 광한루원(2010), 경천대(2010), 임대정 원림(2011), 용호정원 무산십이봉(2011), 퇴수정 원림(2011), 창덕궁 후원(2011), 유희당 원림(2011), 비해당 원림(2011), 구곡원림(2011), 소쇄원 원림(2011), 청풍계(2011), 일지암 다정(2012), 취석정 원림(2012), 하거원 원림(2012), 농산별업(2012)
기타	2	매곡마을(2002), 광한루 편역서(2011)

3) 전통경관연구의 주제 내용

논문의 주제 내용을 유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표 4 참조). 구분은 공간구성·경관해석·사상적 배경·경관특성·고증연구 등으로 나누었고, 공간구성에는 입지·공간구성·조영배경·변천과정 관련연구, 경관해석에는 내면적으로 표현되는 의미론적인 해석 관련연구, 사상적 배경은 자연관·풍류문화·선비정신·경영·이상향 등 관념적 표현에 관련연구, 경관특성으로는 경관구조·경관분석·경관요소 등의 관련연구를 포함시켜 분류시켰다.

고증연구 2편을 제외하고, 공간구성 관련연구는 13편, 경관해석 관련연구는 15편, 사상적 배경은 8편, 경관특성은 9편으로 조사되었고, 전통정원연구가 활발해지는 2009년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공간구성 관련연구는 2009년까지는 5편에서 2010년 이후로는 8편으로, 경관해석 관련연구도 2009년까지는 6편에서 2010년 이후는 9편으로, 경관특성 관련연구는 2009년 이전까지는 2편에서 2010년 이후는 7편으로 늘어났다.

전체 주제내용으로는 경관해석이나 공간구성 관련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관특성 관련연구도 전체연구에서는 수량이 적지만, 2010년부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문집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장소의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고문헌 자료의 활용경향

1) 고문헌 자료의 번역 관례

전통경관연구에서 고문헌 자료의 번역부분을 보면, 이름난 문인이 지은 저명저서인 경우는 한국고전번역원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표 4. 전통경관연구의 주제 내용

구분	편수	대상지
공간구성(입지, 조영배경, 변천과정 등)	13	면양정(2002), 석석지원(2003), 남간정사(2005), 석파정(2006), 고산별서(2009), 피향정(2010), 유희당(2011), 임대정 원림(2011), 여주팔경(2011), 모현정과 수포대(2012), 농산별업(2012), 반변천(2012), 일지암 다정(2012) 등
경관해석(의미론적 해석 등)	15	청평사팔경(2006), 청평사 원림(2006), 연주정(2008), 독락당 원림(2009), 수선루(2009), 낙덕정(2009), 경천대(2010), 별서명승(2010), 용호정원(2011), 비해당 원림(2011), 금시당(2011), 퇴수정(2011), 광계정(2011), 하거원 원림(2012), 취석정 원림(2012) 등
사상적배경(자연관, 풍류문화, 경영, 이상향 등)	8	매곡마을(2002), 석천동(2007), 무흘구곡(2008), 수선루(2009), 도화동 원림(2010), 광한루원(2010), 청풍계(2011), 구곡원림(2011) 등
경관특성(경관구조, 경관요소, 경관분석 등)	9	풍암정(2003), 화회16경(2004), 통도팔경(2010), 농연서당(2011), 소쇄원 원림(2011), 창덕궁 후원(2011), 청심루(2011), 광한루 편역시(2011), 돈암서원(2012) 등
고증연구	2	청평사 선원1(2005), 청평사 선원2(2005) 등

양연구원 등에서 번역된 국역본을 사용하거나, 각 시도 향토집 및 문중의 번역된 개인문집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번역하여 사용하였다(표 5 참조).

고문헌자료의 국역본은 2005년부터 민족추진위원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대부분 인문학자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은 약속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론 보다 신중한 검증을 위해 전문적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들어, 일부 비저명 문인들의 개인문집들에 대한 자료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역시 인문학적이거나 시문학적으로 번역된 자료의 일부를 가져오거나 필요부분만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번역자에 대한 표기 또한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논문상의 원문사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었다. 표 5의 원문 표기란에 제시된 것처럼, 어떤 논문에는 원문과 번역문이 같이 표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번역문만 표기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문번역에 대한 고증 부분이 미진한 점도 나타난다.²⁾

표 5의 원문사용정도를 보면, 2009년 이전까지는 번역본만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논문 특성상 원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경관연구에서 인문학적인 번역보다는 경관적 측면에서 한 번 더 깊고 넘어가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

각되는 부분이다.

2) 고문헌의 분석 자료와의 관계

전통경관연구에서 고문헌의 분석 자료와의 관계를 표 5에서 보면, 주로 사용되는 문헌은 크게 경이나 곡·잡영 등을 표현한 시문과 정자거나 중수기 등의 기문, 그리고 고지도 등이 있었다. 그 중 표 6과 같이 시문만으로 분석한 연구는 9편, 시문 및 기문, 기타 등을 분석한 연구는 30편, 기문만을 분석한 연구는 8편 이었다. 시문만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2009년 이전까지는 2편, 2010년 이후는 7편으로 증가되었다. 기문과 시문 등으로 분석한 연구는 2009년 이전까지는 14편, 2010년 이후는 16편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문으로만 분석한 연구는 2009년 이전까지는 1편, 2010년 이후는 7편 이었다.

고문헌을 분석하는 자료는 주로 기문 및 시문 등을 함께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기문으로만 한 연구는 사실적 기초정보가 많았을 때 단독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주로 이러한 연구는 장소확인이나 공간요소 및 공간구성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옛 경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시문만으로 연구한 논문은 시정적 표현이 많아서 정확한 장소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경영·이상향·상징성·경관해석 등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많았다.

시문만으로 연구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향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는 잘 알려지지 않는 비저명인의 개인문집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고문헌자료 활용에 대한 고찰

결과적으로, 전통경관연구에서 고문헌 자료의 활용에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전통경관연구에서 고문헌 자료의 원문번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문헌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번역의 관점은 인문학적인 견해보다는 전통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전통경관연구에 있어 원문과 번역문은 항상 병행하여 사용되어야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위치 및 장소에 대한 고증역할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전통경관분석에 있어 고문헌의 분석자료의 활용은 기문이나 시문을 병행하여 연구하는 것이 경관의 위치 및 장소, 원형 파악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문헌 자료의 효용성을 높이는 전통경관연구는 실경이 바탕이 되어 기문의 현황 기록으로 실제 경관을 찾아서, 그 현황 위에 팔경과 같은 시문의 위치와 의미론적인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전통경관연구의 원형이나 장소파악이 용이해진다고 사료된다.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표 5. 고문헌 분석 자료와 내용

번호	저자	년도	제목	연구내용	고문헌 분석 자료	번역	원문	저명도
1	김두규외2	2002	영천 매곡마을과 매산 정증기의 탁리관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기문 -개인문집	번역관련 정보 없음(개인번역)	×	비저명
2	문영숙외1	2002	면양집 분석을 통한 면양정 경관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기문, 시문 -개인문집	담양문화원 박영호(역) 면양집	×	저명
3	김동훈외2	2003	서석지일의 조영배경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기문, 시문 -개인문집	국역본 석문집	△	저명
4	이원호외3	2003	김중장공유사를 통해 본 광주 풍암정 주변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포괄적 내용	기문,시문 -개인문집	국역본 김충장공 유사(충장공 김덕령: 1982년 광신김씨문중 국역)	×	비저명
5	유한영외2	2004	겸암 옥연이정사십육경기에 나타난 하회16경의 경관특성	장소확인	기문, 시문 -개인문집	국역본 결재집	△	저명
6	윤영활외2	2005	청평사 선원의 고문헌적 고증연구 1-공간배치를 중심으로	공간구성, 공간배치	기문, 시문 -개인문집, 기타	국역본(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저명
7	윤영활외2	2005	청평사 선원의 고문헌적 고증연구2-세부공간요소를 중심으로	장소확인, 세부적 구성요소	기문, 시문 -개인문집, 기타	국역본(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저명
8	홍형순	2005	남간정사 원림의 특징과 조영배경	조영배경	기문, 시문, 고지도-개인문집	국역본(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성담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권상하, 한수재 집, 국역총서)	○	저명
9	이원호외2	2006	석파정의 조영과 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장소확인,공간구 성, 구성요소	기문, 시문 -소치실록	김상엽(2002) 소치허련 학연문화사 김영호(1992), 국역 소치실록, 진도 문화원	×	비저명
10	윤영활	2006	청평사 원림의 경치와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경관해석, 구성요소	기문, 시문 -읍지, 기타	국역본(민족문화추진위원회 등등)	○	저명
11	김수진외2	2007	서계 박세당의 석천동 경영과 이상향	장소확인, 경영, 이상향	기문, 시문 -개인문집	국역본(농촌진흥청, 2001) 색경, 국역본(민족문화추진회, 2006) 서계집	×	저명
12	노재현외2	2008	배산 연주정12경의 경관상과 표현 미학적 특징	미학적 특징	기문, 시문, 고지도-신증동국 여지승람, 군지	국역본(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 부 산천조, 증보문헌비고 권지22, 익 산군지)	○	비저명
13	김수진외2	2008	한강 정구의 무을구곡 경영과 이상향	경영, 이상향	시문 -개인문집	국역본(한강정구의 한강집1~4권) 송기채(역) 민족문화추진회,	○	비저명
14	강순영외1	2009	임거오십영을 통한 독락당일대의 경관해석	경관해석	시문 -개인문집	장도규(2002), 회재 이언적의 삶과 임거15영	×	저명
15	유가현외1	2009	윤선도의 고산별서 입지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입지	시문, 고지도, 고화 -개인문집	송기채역, 국역 농암집1, 민족문화추 진위원회 국역본 사용	○	저명
16	노재현외2	2009	낙덕정 조영에 갖든 장소성과 하서 김인후의 성리학적 의미	장소확인, 의미해석	시문, 기문 -개인문집	하서전집, 한문학자(이신성)의 도움	○	비저명
17	신상섭외2	2009	진안 수선루를 통해 본 도가적 자연관과 풍류문화	자연관	시문, 기문 -군지	진안군지, 수선루 중수기	○	비저명
18	노재현	2010	동도팔경의 경관 상징성과 서사 구조	상징성	시문-신증동국여지 승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	비저명
19	김홍곤외1	2010	서울 북악산 도화동 원림유적에 대한 고찰	장소확인, 원형고찰	시문, 기문 -개인문집	국역본(동국여지비고, 아정유고, 한 정지략, 다산시문집)	○	비저명
20	이재근	2010	별서명승의 개념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	의미론적 해석	시문, 기문	누정기, 상량문 번역자 관련정보 없 으나, 전문가 검증	○	비저명
21	심우경외2	2010	광한루원에 내재된 상상환경요소 고찰	상상환경요소	시문 -개인문집	국역본(허난설현의 시, 서거정 사가 집)	△	저명
22	김정식외4	2010	가람 이병기 생가 수우재에서 찾는 소박함과 선비정신	장소확인, 선비정신, 입지, 배치	시문, 기문 -개인문집	국역본(이병기 가람시조집, 가람문 선)	△	비저명
23	신상섭외1	2010	동국이상국집을 통해 본 고려중기 퇴직재 원유와 조경문화	향유양상	시문 -동국이상국집	국역본(민족문화추진회, 동국이상국 집, 동문선6권).(한국고전번역원, 이 규보, 동국이상국집)	○	비저명
24	이현우	2010	피향정 일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장소확인, 공간구성	기문 -면지, 누정록	피향정 수리보고서, 정음사(2004)	△	저명
25	이유진외2	2010	우담채득기의 경천대 경영에 나타난 문화경관요소의 해석	장소확인, 경관요소,	기문, 시문 -개인문집	권태을(2008a)자천동 산수록고, 권태 을(2008b)우담채득기의 군선언지록고, 상주문화연구, 우담선생문집	×	저명
26	노재현	2011	팔경시와 고지도에 투영된 여주 팔경의 전승양상	장소확인	기문, 시문, 고지도-읍지, 승람	국역본	○	저명
27	신상섭외1	2011	안평대군 비해당 원림의 의미경관과 조경문화	의미경관	시문 -개인문집	국역본	○	저명

표 5. 계속

28	이진향외1	2011	청동계 경관에 관한 연구	장소확인, 경관 분석, 공간구성	시문, 기문 -풍계집승기	번역관련 정보 부족	△	비저명
29	노재현외2	2011	구곡원림에서 찾는 신선경의 경관 스토리보드	신선경	시문 -개인문집	한문학보2집에 게재된 이상주 (2000)의 같은구곡과 같은구곡시	○	저명
30	김묘정외1	2011	대암선생문집 속의 용연서당집 경에 관한연구	장소확인, 경관분석	시문,기문 -개인문집	필자번역	○	비저명
31	엄태건외4	2011	밀양 금시당12경의 문화경관해석	장소확인, 경관해석	시문, 기문 -개인문집	금시당집 국역판간행위원회	○	저명
32	노재현외1	2011	누정제영시와 고지도에 투영된 청심루와 여주팔경의 경관구조	장소확인, 경관구조	시문, 기문, 고지도	팔경제영시 풀이집(이현구편역) 여강시축, 조성문편역, 여주문화원 (2002)	○	저명
33	노재현외4	2011	광제정 장소전승의 함의와 의미 맥락	함의 및 의미	기문 -개인문집	번역관련 정보 부족	○	비저명
34	손용훈외1	2011	창덕궁 후원의 시문분석에 의한 의경과 경관특성	경관특성(의경)	시문 -실록	국역본(실록)	△	저명
35	이현우외3	2011	매천별업 퇴수정 원림의 의미경관론적 해석	장소확인, 경관해석	시문, 기문 -개인문집,사기	한국고전종합DB 국역본(퇴수정원운 원문, 진시황본기 사기)	○	비저명
36	신상섭외2	2011	무수동 유희당 원림의 산수체계와 공간구성	장소확인, 공간구성	기문 -개인문집	국역본(유희당집)	○	저명
37	노재현외3	2011	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임대정 원림의 입지 및 조영특성	장소확인, 입지	기문 -개인문집	화순문화원(1997)발간 화순누정시	○	비저명
38	이현우	2011	진주용호정원 무산십이봉의 경관의미와 축산효과	장소확인, 경관의미	시문, 기문	박기용의 번역자료 준거	△	저명
39	소현수	2011	차경을 통해 본 소쇄원원림의 구조	장소확인, 원림구조파악	시문, 기문 -소쇄원사실집	국역본	×	저명
40	안득수	2011	광한루 편액시에 나타난 경관요소 분석	경관요소분석	시문 -편액시	광한루예찬시선 (남원시, 1999)	×	저명
41	신상섭외2	2012	별업 하거원 원림에 투영된 조영사상 연구	조영사상	기문 -개인문집	국역본(유희당집2, 하거원기, 반환원, 명당실기, 거업제기)	○	저명
42	노재현외2	2012	취석정 원림에 담긴 조형언어의 의미론적 해석	장소확인, 의미해석	기문 -개인문집	규장각 서울학연구원	○	비저명
43	김정문외1	2012	허주산수유첩에 표현된 반변천십이승경의 어제와 오늘	변천과정	기문, 시문 -화첩	한국학중앙연구원	○	비저명
44	노재현외2	2012	거창 모현정과 수포대의 장소착근 방식	장소확인	시문, 기문 -개인문집	국역본(박인로 노계집, 이준무 상계문집)	○	비저명
45	노재현	2012	두류산 대흥사 일지암 다정의 일고찰	장소확인, 원형찾기	시문, 기문 -개인문집	초의시고 제1권,도암십영 원문해석, 이종찬의 초의시고, 소치실록	○	비저명
46	서동일외1	2012	강진 농산법업의 공간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장소확인, 공간구성	기문 -개인문집	다산시문집 13권 조석루기 원문해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	비저명
47	노재현외3	2012	연산 돈암서원 구지의 원형경관 탐색	장소확인, 공간구성, 구성요소	시문, 기문 -개인문집	양성당기와 계곡집의 양성당십영 원문해석- 디지털논산문화대전	○	비저명

※ 원문 - 있음(○), 부분(△), 없음(X)

표 6. 고문헌과 분석 자료와의 관계

구분	편수	원인	결과
시문만으로 분석한 경우	9	시정적 표현이 많아서 정확한 장소파악이 어려움	경관의미 파악 및 경관해석, 의미론적 해석, 근원적 상세 등으로 이어짐
시문, 기문, 고지도 등으로 분석한 경우	30	기문에는 사실적인 정보기록이 많아서 위치추정이 쉬움	위치추정이 쉬우며, 주변경관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장소파악이 용이함. 경관구조, 경관분석, 경관요소, 경관해석 등
		기문의 사실적인 정보 기초 위에 시문의 의미적인 장소파악 가능함	
		간혹 구체적 장소 파악이 어려운 것도 있음	
기문만으로 분석한 경우	8	기문만으로 장소확인이 가능함	의미론적 해석, 공간구성, 구성요소, 근원적 상세 등으로 표현됨
		간혹 구체적 장소파악이 어려운 것도 있음	

앞으로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개인문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미 번역된 문집에 대한 활용이 줄어들고 동시에 미발굴된 문집의 활용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문의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제시해주며, 번역의 출처도 명기해주는 것이 검증이나 고증문제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황을 기록한 기문인 경우에는 인문학적인 번역보다는 전문성이 갖추어진 경관적인 측면으로의 번역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문헌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시문만으로 전통경관을 분석할 경우에는 현장답사의 제한적 요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헌상에서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고 현장조사 또는 실제 대상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정적 표현에 의해 대상이 확대되거나 사상이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관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로 시문분석관련 논문은 경관해석이나 경관의미파악 등의 연구로 이어졌다.

시문과 기문 등을 병행하여 전통경관 분석을 한 경우를 보면, 풍부한 자료로 인해서 경관의 위치 및 장소추정이 용이하였다. 즉, 정자거나 중건기 등은 사실적 기록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 경관의 위치추정이나 주변경관분석에 있어서도 많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기문 등을 근거로 연구의 기초를 잡은 후, 보완적으로 시문을 활용하는 연구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고문헌을 제재로 한 전통경관관련 논문의 연구경향을 통해서 앞으로 고문헌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본 것이다.

최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통조경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경향 및 고문헌자료의 활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대상지 유형·대상 연구내용 등으로 연구경향을 조사하였고, 원문번역과 시문과 기문 등의 분석 자료와의 관계를 통하여 고문헌자료의 활용을 조사하였다.

연구된 대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로 저명한 장소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저명장소와 비저명장소가 같이 병행되다가, 2012년 이후에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문헌을 통한 연구논문의 수량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해에 2~3편 정도인 것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편, 15편, 7편 등으로 수량이 많아졌다. 논문편수가 급증한 것과 연구대상의 관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으로 옮겨갔는데, 저명대상인 경우에는 국역본 자료들이 많아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기

존 전문가에 의해 거의 대부분 연구가 진행된 상태라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고, 비저명장소나 개인문집을 발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과정과 번역본의 고증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본 연구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상의 유형은 경과 곡을 주제로 한 것 9편,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것 12편, 별서나 원림 등을 주제로 한 것 24편 정도로 별서나 원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다. 경이나 곡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영의미와 경관구조분석·이상향·경관해석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경우는 장소성·정체성 등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별서 및 원림연구는 경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내용은 고증연구(2편), 공간구성 및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가 각각 13편과 15편, 사상적배경과 경관특성이 각각 8편과 9편으로, 전체 주제 내용으로는 경관해석이나 공간구성 관련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관특성 관련연구도 전체연구에서는 수량이 적지만, 2010년부터 많이 늘어났다. 이는 개인 문집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장소의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문헌자료의 활용경향에서 먼저 번역관계를 보면, 저명저서일 경우는 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번역된 국역본, 각 시도 향토집 및 개인문집 번역본 등을 주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번역본에는 경관에 대한 부분이 약술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경관연구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보인다. 비저명 문인들의 개인문집 자료를 가지고 접근한 연구들 역시 인문학적이거나 시문학적으로 번역된 자료의 일부를 가져오거나 필요부분만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번역자에 대한 표기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원문사용에 있어서도 원문과 번역문이 같이 표기되거나, 번역문만 표기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원문번역에 대한 고증 부분이 미진한 점도 나타났다.

고문헌의 분석 자료와의 관계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주로 시문과 기문, 그리고 고지도 등이 있었다.

시문만으로 분석한 연구는 9편이며, 2009년 이전까지는 2편, 2010년 이후는 7편으로 증가되었다. 시문 및 기문, 기타 등을 분석한 연구는 30편이며, 2009년 이전까지는 14편, 2010년 이후는 16편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문만을 분석한 연구는 8편이며, 2009년 이전까지는 1편, 2010년 이후는 7편이었다. 고문헌을 분석하는 자료는 주로 기문 및 시문 등을 함께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기문으로만 한 연구는 사실적 기초정보가 많았을 때 단독으로도 이용되었다. 주로 이러한 연구는 장소확인이나 공간요소 및 공간구성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문만으로 연구한 논문은 시정적 표현이 많아서 정확한

장소 파악이 어려워, 주로 경영·이상향·상징성·경관해석 등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많았다. 시문만으로 연구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향은 2010년부터 잘 알려지지 않는 비저명인의 개인문집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에 관한 본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일반 개인문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미 발굴된 문집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원문의 효율적인 이해나 검증을 위해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제시하고, 번역의 출처도 명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을 기록한 기문인 경우에는 조경 및 경관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번역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문헌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시문과 기문 등을 병행하여 전통경관 분석을 한 경우에 풍부한 자료로 인해서 경관의 위치 및 장소추정이 용이하므로, 기문 등을 근거로 연구의 기초를 잡은 후, 보완적으로 시문을 활용하는 등 연구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고문헌을 다루는 관련학회지의 연구경향을 같이 조사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적 여건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주 1) 널리 알려진 장소이지만 관련논문의 부족으로 '비저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주 2) 면앙집의 면앙정기 원문과 한국고전번역원DB자료의 국역본에 명시된 면앙정에 관한 번역부분을 보면,

“...爲屋三間° 四虛其西北隅° 極陟絕° 屏以密竹° 蕭慘悄悄° 東階下廓之° 構溫室四檻° 植花卉° 綴以短垣°

“...집을 세 칸으로 만들고는 사방을 텅 비게 하였는데, 서북 귀퉁이는 매우 절벽이며, 좌우에는 뻣뻣한 대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삼나무가 울창하다. 동쪽 뜰 아래를 확 트고는 온실 몇 칸을 짓고 온갖 화훼를 심어 놓았으며, 낮은 담장을 빙 둘러쳤다.”

여기에서 “構溫室四檻° 植花卉”는 “온실 몇 칸을 짓고 온갖 화훼를 심어 놓았으며”라고 번역되어 있었다. 기록적인 내용을 표기하는 정자기에서 “온실 4칸”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과 조선전기부터 채소나 약초재배용으로 조성한 온실의 역할과 주변의 화훼식재와의 관계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전통경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인용문헌

1. 김용기(1991). 조경사 연구의 현황. 한국조경학회지, 19(2): 94-98.
2. 김용기, 정기호(2000). 한국정원학회지 게재논문(1982~1999)의 경향 분석과 전통조경의 향후 연구방향의 모색. 한국정원학회지, 18(4): 1-9.
3. 나미영, 최종희, 김용기(1998). 제주성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6(3): 1-11
4. 남승희, 김용기(2000). 외암리 민속마을의 수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1): 60-69.
5. 민경현(1982). 서석지를 중심으로 한 석문임천정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 4-27
6. 백지성(1994). 창덕궁 후원 어수당구역의 공간구조와 식재에 대하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2(1): 15-29.
7. 신상섭(2003). 한국조경학회지 게재논문 조경사 분야의 연구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1(5): 146-154.
8. 이석래(1986). 청도운문의 거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5(1): 39-51.
9. 정동오(1983). 정약용의 원림생활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2(1): 123-136.
10. 정성태, 정기호(2000). 학술연구에 나타나는 풍수의 시계열적 연구경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3): 22-29.

원 고 접 수 일: 2014년 2월 3일

심 사 일: 2014년 3월 3일 (1차)

2014년 3월 12일 (2차)

2014년 3월 18일 (3차)

2014년 3월 23일 (4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3월 24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